



하이얼콜링 컨퍼런스가 샌디에고에서 1500여 명의 한인 2세 청년·대학생과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행사의 가장 큰 재미는 역시 선물 고르기였다. 부모들은 구세군이 준비한 선물 가운데 자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직접 한 자녀당 3개씩 고를 수 있었다.

1500명 한인 청년

더 높은 부르심에 헌신 다짐

KCCC 주최 하이얼콜링 컨퍼런스 열려

1,500여 명의 한인 2세 청년·대학생, 청소년들이 KCCC의 연례 집회인 하이얼콜링(Higher Calling, 더 높은 부르심)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21일부터 4일간 샌디에고 타운앤컨트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는 뜨거운 찬양과 함께 그 막을 올렸다. 이 집회에는 대학생들은 물론 남가주 일대의 고등학생들도 참여했고 약 70여 명의 청년사역자들도 함께 했다.

올해의 주제는 "The Light"였다. KCCC는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전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했다.

첫날 메시지를 전한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는 이 주제에 맞게 청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SIN)라는 단어 한 가운데 바로 나(1) 자신이 있다"고 설

명했다. 또 그는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목사는 "하이얼콜링 집회의 중요한 가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해 '헌신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형은 목사 외에도 이번 컨퍼런스에는 시애틀웨스트교회 유진 조목사와 KCCC의 대표 김동환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또 다양한 특별 세미나와 포럼도 준비됐다.

KCCC는 올해도 특히 소그룹 모임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으로 전해진다. 집회에서 받은 은혜를 헌신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하는 순간은 사실 숙소에서 이뤄지는 소그룹 모임 때이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 참석자들도 매일 밤 소그룹에서 하루의 삶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이윤형 기자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에 특별한 사랑 전달

구세군나성교회, 400여 주민 초청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 행사

22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자 구세군나성교회 앞에 긴 줄이 이어졌다. 라티노와 흑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어림잡아 봐도 400여 명은 족히 되어 보인다. 구세군나성교회가 이 지역의 저소득 가정들에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기 위한 행사를 여는 날이었다.

구세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리스마스 맞이 선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봉사라면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구세군답게 행사 며칠 전 짧은 인터뷰를 거쳐 접수를 받고, 가족 수와 어린이 수에 맞춰 선물을 준비했다. 월요일 오전 시간인 데다 별다른 홍보도 하지 못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120여 가정이 이 행사에 등록했다.

먼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 후, 부모들은 연령대 별로 분류되어 있는 장난감 코너에서 한 자녀당 3개의 선물을 직접 고를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에도 마음에 드는 선물을 선택 사줄 수 없어 가슴 아파

했을 법한 부모들은 직접 선물을 고르며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 구세군인들이 준비한 맛있는 점심 식사도 마련됐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켓 선물권과 음식이 포장돼 있는 푸드박스도 한아름씩 배부됐다.

이 행사는 구세군의 사회봉사 학생클럽인 P2C(Project 2nd Chance)도 함께 했다. 구세군이 봉사의 리소스를 제공하지만 구세군이 아닌 학생,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 개방된 모임이다. P2C는 이날 행사를 위해 얼마 전 베네핏 콘

서트를 열고 모금을 한 바 있다. 그 수익금으로 이날 5명의 가정을 입양하는 형식으로 가족 전원에게 선물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줬다.

이주철 사관은 "올해는 구세군 선배를 설치하는 마켓의 수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다소 저조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지만 사실 더 많이 섬기지 못하는 것이 죄송할 뿐"이라 덧붙혔다.

김준형 기자



구세군나성교회의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 행사에 무려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함께 예배 드리며 행사를 시작했다.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의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은혜의 33년 33 Years of Grace
Happy New Year!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세상의 빛과 소금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1/5(월) 5:3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1/6(화) 5:30am 강사: 신승훈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1/7(수) 5:30am 강사: 김인식 목사 (LA웨스트힐즈교회 담임)
 1/8(목) 5:30am 강사: 권혁빈 목사 (업비인온누리교회 담임)
 1/9(금) 5:30am 강사: 진우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1/10(토) 6:00am 강사: 김춘근 장로 (JAMA Founder&Chairman)
 일시: 2015. 1.5(월)~9(금)/5:30am, 10(토)/6:00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st Rd. Fullerton, CA 92833 Tel:(714)446-6200, Fax:(714)446-6207 www.gracemi.com

송구영신예배
 일시: 2014. 12. 31(수) 10: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말씀: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신년감사예배
 2015년 1월 4일(주일)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퓨리탄 신앙 승리 326주년 기념해”

PARSC 총재 이완재 목사 초청 컨퍼런스 열려



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PARSC)가 퓨리탄의 신앙 승리 326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를 12월 16일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열었다.



PARSC 이완재 총재

퓨리탄은 누구였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신앙 유산은 무엇인가? 퓨리탄 신앙 승리 326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이완재 목사는 “한국교회가 퓨리탄의 신앙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않고는 현재의 위기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PARSC)의 총재인 이 목사는 퓨리탄에 대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1550년대부터 160여 년 동안 진리를 위해 용감히 싸워 승전고를 울린

성경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하면서 “타락한 신앙과의 싸움에서 1688년 12월 18일 드디어 승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8세기의 신계몽주의와 이성주의, 이신론 사상에 의해 교회는 다시 세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암흑기에 접어든다.

그는 이 대목에서 PARSC의 태동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교회가 퓨리탄의 신앙 영성을 계승해서 변혁되고 갱신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PARSC는 1947년 12월 제임스 패커 박사에 의해 옥스포드대학교 틴데일 홀에서 탄생했으며 패커 박사는 캐나다 리전트신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후학들을 양성했다.

그 후학 중 한 명인 이완재 목사는 한국교회에 퓨리탄 영성 전승을 위해 그동안 명맥이 끊어졌던 PARSC를 1998년 재발족했다.

또 미주 지역에서는 교계 원로인 임동선 목사, 에반켈리아대 신현국 총장 등이 자문 및 협력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얼바인 아름다운교회 입당 및 창립예배를 마친 후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했다.

얼바인 아름다운교회 입당 및 창립예배 드려

얼바인 아름다운교회가 입당 및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1999년 풀러튼에서 남가주부흥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됐고 이동준 목사가 초대 담임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시무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미주노회에 속한 이 교회는 지난 11월 8일 얼바인으로 이전했으며 12월 1일 이름을 아름다운교회로 바꾸게 됐다. 이를 기념해 지난 12월 21일에는 입당 및 창립예배를 드린 것이다.

설교는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가 “장애물을 이기고 전진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 이교회가 속한 국제총회의 총회장 이서 목사, 얼바인열린교회 이선영 목사 등이 축사했다.

진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전진할 수 있다. 원수 마

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서목사는 “기도하는 교회, 온 성도가 은사별로 힘을 합하는 교회, 온 성도가 십일조 생활을 하는 교회,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것”을 권면했다.

이 교회는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영안교회 담임이면서 한국교회연합의 대표회장인 양병희 목사, 인천주안중앙교회 박승순 목사, 서울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갖는다.

주소) 17702 Cowan Irvine, CA92614
전화) 949-250-1111
문소현 기자

예수전도단 BEDTS

독수리 같은 예수님 제자 훈련

예수전도단(YWAM)의 나사장 선교연합(NASA Window Mission Alliance)이 독수리예수제자훈련학교(BEDTS)를 LA와 세리토스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 학교는 예수전도단의 가장 대표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직장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

독수리예수제자훈련학교는 개인의 성품 개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독특한 은사 개발 및 소명 확인 등을 목표로 한다. 즉, 주님께 헌신된 직장인들을 발굴해 그들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한 후, 하나님이 주신 전문인 사역자로 선교적 삶을 살게 한다.

이번 학교는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오는 2015년 1월 25일 저녁반과 28일 오전반이 각각 개강해 16주간 동안 진행된다.

12주간의 강의 및 현장 실습이 있는데 매 주장은 3일간의 강의와 4일간의 현장 적용으로 구성돼 있다. 강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묵상, 예배, 중보기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내적 치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영적 권위, 성경적 재정관, 세계관, 영적 전쟁, 선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12주간의 강의 이후에는 10일간 전도여행을 하게 된다.

LA에서 열리는 저녁반은 만나교회(433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90020)에서, 세리토스에서 열리는 오전반은 생수의강선교회(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90703)에서 각각 해당 날짜에 시작된다.

학비는 700달러. 문의는 정한두 간사(LA, 213-760-0099), 유혁 간사(세리토스, 626-628-7429)에게 하면 된다.

문소현 기자

청신장로교회

임태환 담임목사 부임



임태환 목사

롱비치에 위치한 청신장로교회에 임태환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한다. 임목사는 호남신학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와 풀러신학교, 미드웨스턴신학교 등에서 공부했다. 최근까지는 나성소망교회(김재울 목사)에서 부목사로 섬겼다.

청신장로교회는 주일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며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성경공부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 한글교실, 무료 수학교실, 장수대학, 성경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소) 500 E. San Antonio Dr. Long Beach, CA90807
전화) 626-316-8248

롱비치에 위치한 청신장로교회에 임태환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한다. 임목사는 호남신학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와 풀러신학교, 미드웨스턴신학교 등에서 공부했다. 최근까지는 나성소망교회(김재울 목사)에서 부목사로 섬겼다.

청신장로교회는 주일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며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성경공부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 한글교실, 무료 수학교실, 장수대학, 성경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소) 500 E. San Antonio Dr. Long Beach, CA90807
전화) 626-316-8248

탈북과 FBM : 제5회 가정사역 컨퍼런스

탈북신학교와 가정세우어사람들(FBM) 주최로 제5회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1월 23일, 24일 양일간 열린다.

목회자, 선교사, 사모,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컨퍼런스에서는 가정사역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노만 라이트 교수와 함께 벤슨 교수, 렉스 존슨 교수, 서니 송 교수 등 탈북의 교수들이 강의하고 남가주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한기홍 목사, 강준민 목사, 노진준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특히 상담설교에 대해 전형준 교수(백석

대 목회상담학과)가 나선다.

이 세미나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목회자들의 대처도 다룰 예정이라 더욱 주목된다. 모든 강의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가 계속되며 장소는 탈북신학교 앤드류 뱅렛룸(13800 Biola Ave. La Mirada, CA90639)이다. 등록은 12월 31일까지는 \$30이고 그 이후는 \$50이다. 문의는 www.family4family.com 또는 714-287-2458로 하면 된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marhlaw.com
email. marhlaw@yahoo.com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모든 법적 문제의 만족한 결과는 정확한 상황 분별과 의뢰인의 필요를 이해하는데서 시작합니다.
법적인 모든문제,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마동환변호사그룹

상법 / 이민법
일반민사 / 상해 / 교통사고
가정법 / 뱅크럽시 / 소송전문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LA 본사
213.487.9190 fax. 213.487.9484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팍 / 풀러튼 / 세리토스 지점
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3)

마동환변호사

탈북자들은 도움 받기만?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엔키아 선교회 창립 이후 첫 송년회 열어



엔키아 선교회의 송년회가 열렸다. 엔키아를 이끄는 리더십들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김홍철 회장, 이지애 총무, 김창호 부회장, 김영구 디렉터, 이명철 디렉터.

“탈북자들은 늘 도움 받기만 해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말 토론토에서 5명의 탈북자가 모여 창립했던 엔키아 선교회(NKIA, North Korean In America)가 12월 21일 첫 송년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무려 50여 명의 탈북자 동포들이 참석해 엔키아의 지난 1년 사역을 회고했다. 이들은 사선을 넘어 미국에 정착하기까지, 또 정착한 후에도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고달팠던 삶을 돌아보며 그 순간마다 더욱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남가주한인목사회 백지영 회장,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강지원 회장, 민주평통 LA 지부의 이창건 수석부회장 등도 탈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잘 알려진대로 탈북자 사역은 결코 쉽지 않다. 이날 한 탈북자 동포는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에서 “문화, 언어, 사상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다. 탈북의 트라우마까지 갖고 있다”고 자신의 삶을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아픔을 넘어 남을 돕는 자리까지 갈 것이라고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엔키아는 단순히 탈북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넘어서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한인들과 타민족 커뮤니티에까지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렉터 김영구 목사는 이 엔키아의 창립과 운영에 가장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그는 탈북자 출신이 아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돕는다고요? 누가 누구 도와요? 함께 살

아가는 거죠.” 그의 말처럼 그는 실제로 탈북자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는 “탈북자들을 도와야 한다고들 하죠. 그러나 탈북자들도 이제 그렇게 도움만 받는 존재가 되어서 안됩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올해 송년회도 탈북자들이 직접 자신의 돈을 들여 준비했다. 푸짐한 선물도 마련했다. 내년에는 미국 내 인디언 선교도 함께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양로병원도 방문해 섬길 예정이다. 엔키아는 최근 사역이 확대됨에 따라 LA 한인타운 내(피코+알링턴)로 사무실을 이전한 바 있다. 이 사무실도 탈북자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송년회에서는 2015년 신입 회장에 김홍철 씨, 부회장에 김창호 씨, 총무에 이지애 씨가 임명됐다. 김홍철 씨는 2014년에도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엔키아는 2015년에 가족 맺기 운동을 펼친다. 한인 가정과 탈북자 가정이 서로 결연을 맺는 운동이다. 탈북자 가정은 대다수가 혼자 혹은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돼 있다. 따라서 한인 가정과 결연을 맺어 친척 관계나 조부모 관계도 생애 서로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고자 함이다. 또 자유탈북인연합과 힘을 모아 월간 소식지도 발간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밸리교협이 12월 9일 총회에서 신입회장에 곽덕근 목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를 선출했다.

밸리교협 회장에 곽덕근 목사 선출

지난 12월 초 샌퍼난도밸리교역자협의회는 정기총회를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열고 신입회장에 곽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를 선출했다.

곽 목사는 “밸리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행함으로 지역 사회에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부회장은 김영일 목사(밸리드림교회), 총무는 문일명 목사(한우리장로교회), 서기는 서오석 목사(나

성평화교회), 회계는 나형길 목사(그이름교회), 장학위원장은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친교부장은 김선일 목사(마라톤교회) 등이 임명됐다.

한편, 밸리교협은 12월 14일 오후 5시 웨스트힐장로교회(김인식 목사 시무)에서 성탄축하 연합찬양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으며, 총 2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나래 기자

“자녀들이 받았던 장학금 이제 그들이 돌려 줘야죠”

작은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사랑을 나누는 화제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회창 목사)는 3년째 성탄주일마다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고 있다.

장학생 중 한 명인 허대윤(D. Huh, 1991) 학생은 한국에서 상업 만화디자인을 전공, 게임회사인 넥슨에 발탁되어 일하던 중 더 큰 도전을 받아 파사데나 아트센터 칼리지(Art Center College of Design, Pasadena)로 유학했다. 진주은(J. Jin, 1992) 학생은 엔터테인먼트 작가의 꿈을 품고 현재 산타모니카 칼리지(Santa Monica College)에서 공부하고 있다. 지성소(S. Ji) 학생은 사우스파사데나고등학교(S. Pasadena High School) 11학년으로 배우의 꿈을 갖고 있다.

이 장학금을 수여한 김회창 목사는 사실 사랑을 돌려주는 중이다. 그의 자녀들도 과거 여러 한인단체



(사진 좌측부터) 진주은, 허대윤, 지성소 학생에게 김회창 목사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들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현재는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김 목사는 매년 성탄절이면 그의 자녀들의 헌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과거 자신의 자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미래의 세계적인 인물이 될 후진들을 키우는 데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로즈퍼레이드에 한국1호 신장기증자 박진탁 목사 참여

매년 1월 1일 LA 지역의 명물로 꼽히는 로즈퍼레이드에 박진탁 목사가 참여하게 됐다. 미국에서 장기기증운동을 벌이고 있는 원레거시(One Legacy)는 매년 로즈퍼레이드에 장기기증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장미꽃차를 출연시켜 시민들에게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전해왔다.

이 단체는 올해 “Never Ending Story(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주제의 꽃차를 내보낸다. 이 꽃차를 위해 장기기증자 초상화로 꾸며진 72권의 책을 만들었고 이들의 장기를 이식받아 새 생명을 얻은

60명을 의미하는 나비 60마리를 장식했다. 여기에 더해 장기기증자 12명이 꽃차 옆을 걸으며 퍼레이드를 벌이게 된다.

이 중 한 명이 바로 한국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다. 올해 78세인 그는 1991년 한국 최초의 신장기증자이기도 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

다. 미주 한인 출신인 박 목사는 미국에서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깨닫고 23년 전, 한국에 이 운동본부를 설립했다.

박 목사는 “환우들에게는 희망을, 장기기증인 및 그 가족들에게는 감사를 전하는 로즈퍼레이드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미국에서 진행되는 생명나눔에 대한 아름다운 열기가 한국에서도 이어져 2015년 장기기증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T.323.737.8888

홍리민지부: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기격 \$90	240g 소비자기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370
4개 구입시 \$230	3개 구입시 \$555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Southern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남부개혁신학대학 및 신대원

하나님의 은혜로 남부개혁신학대학은 다음과 같이 복음에 불타는 주의 종들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신학공부를 철저히 하도록 진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LA 캠퍼스 학위 취득 과정

학위(Degree)	학점	수학연한	지원자격
학사과정(B.Th)	120 학점 이상	4년	고졸/동등 이상
석사과정(M.Div)	90 학점 이상	3년	대졸/동등 이상
석사과정(M.B.S)	60 학점 이상	2년	대졸/동등 이상
박사과정(D.Min) (D.Miss) (D.I.C.S)	42~52학점 이상	2~3년	M.Div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경우 3년간의 목회사역 경력을 소유한 자

30 여명의 최고의 박사 교수진이 신입, 편입 등록을 환영합니다.

개강 1. 12. 2015

입학절차, 규정이나 자세한 내용 Dr. John H. Kim 에게 (213-219-0649 bostonch@hotmail.com)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비 (1unit) - 학사 \$100, 석사 \$110, 박사 \$130, 정강 (1과목) \$100
장학금 적용 / 신학 연구, 선교적 사역, 실용적 학위

목회학 D. Min, 선교학 D. Miss, 문화교류학 D.I.C.S. 박사과정

2 Subjects Intensive 2과목 집중수업 22nd ~ 27th 2. 2015

Time: 22nd - Sun 6:30-10:00 pm, 23rd ~ 27th - 8:00 am - 8:00 pm 총 72시간

온라인 수업도 합니다.

LA President Dr. John H. Kim

Southern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740 - H Dacoma St., Houston, TX 77092
www.srtcs.org

LA Campus 2975 Wilshire Blvd., #415 Los Angeles, CA 90010

코이노니아선교회의 사랑 나누기 캠페인

양로원에서 노인아파트까지 실제적 섬김에 앞장서



코이노니아선교회가 노인아파트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쌀을 전달했다.

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는 2009년부터 양로병원, 양로원, 노인케어센터 등의 양로기관을 방문하여 예배와 찬양, 특별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인들을 섬겨오고 있는 선교단체이다. 비록 육은 연약하나, 영과 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세워 나가도록 노인들을 도우면서 양로기관에서는 미처 베풀지 못하는 음악, 미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섬김의 대상도 일반환자들은 물론 치매환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코이노니아선교회 산하 Wings of Joy 찬양선교단은 양로기관(노인아파트 포함)을 방문하여 노인인들과 환자들에게 예술을 매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Wings of Joy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색소폰, 무용, 성악 등에 전문가들로 조직되어 있고, 2009년 11월 제1회 자선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015년 1월 제63회 공연을 앞두고 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교회나 일반단체에서 연례행사로 양로원, 양로병원, 케어센터 등을 방문한다. 이들 양로기관은 오랫동안 방문객들로 시끌벅적하고 자녀들의 방문을 기다리다 지친 노인들도 이때 만큼은 서운한 마음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그러한 양로병원들과 달리, 저소득 노인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아파트를 방문하는 교회나 단체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상점마다 물건이 넘쳐나고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며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받고 교회는 성탄 축하 행사로 분주하지만, 정작 따뜻한 손길이 가장 절실한 곳 중의 하나인 이곳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듯 소외되고 아무도 찾는 이 없는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 더 깊은 소외감에 빠져 든다고 한다.

이에, 코이노니아선교회는 2014년부터는 이들 소외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

로 사역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사우스베이 지역의 경우 저소득 노인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적게는 75명, 많게는 2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연령대는 최저 65세부터 최고 97세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25%는 건강이 좋지 않아 방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거나 자녀나 친지가 없어 방문객조차 없는 노인들이라고 한다.

코이노니아선교회는 이러한 저소득 노인아파트 독거노인을 섬기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로 Golden West Tower 저소득 노인아파트 50명, 11월에는 75명 포함 125명의 독거노인들에게 20파운드 쌀 1포석을 전달했다.

12월에는 South Park Manor 및 Meadowlark Manor 저소득 노인아파트에 각각 50포씩 1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쌀을 전달했다. 이 선교회 대표 박종희 목사에 따르면, 평균 연령 80세가 훌쩍 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밤마다 쌀을 운반해 드렸는데 작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자신도 울컥 눈물까지 나더라고 했다.

코이노니아선교회는 2014년 한 해 성삼위 하나님과 신실한 분들의 도움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는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믿는 이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의 우애를 나누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박종희 목사가 양로센터를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의 사랑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자 함에 중점을 두려 한다고 말한다. 코이노니아선교회의 작은 날개짓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하신 말씀처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어진 사역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한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코이노니아선교회의 2015년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금 영어 교실을 열어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여 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뜨개질 교실 및 미술 교실을 통해 TV시청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둘째, 서류 대행서비스, 마켓이나 병원 라이드 해 주기 등 실질적인 도움 주기, 셋째, 노인경로잔치를 베풀어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넷째,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움주기 등의 실질적인 섬김 사역을 준비 중이다.

박 목사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삶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노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의 마지막 바퀴를 힘겹게 굴러가고 있는 삶의 선배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라며 뜻이 있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본 선교회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201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선교회를 후원하고자 하면 Koinonia Mission(주소 20907 S. Normandie Ave. Torrance, CA 90501)으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문의) 박종희 목사310-508-2733

W M S

WISDOM MISSION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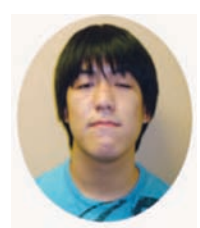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 학생이 변화되는 학교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본지는 학업을 포함해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학생들이 기독교 사립학교 WISDOM MISSION SCHOOL(WMS, 지혜선교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명문대에 진학했는지를 알려주는 간증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Chan Dong Son 군 UCLA 입학

WMS는 19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약 4,5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Harvard, Yale, Stanford, UC Berkeley 그리고 의과대학 등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 온 Han Sam SAT 학원이 모태다.

이 학교는 이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각 학생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견, 개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세상에 진출시키는 데에 그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국 수퍼바 이저가 학교를 한번만 더 빠지면 퇴학을 시킨다고 했다. 그때에 WMS를 소개받고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AP시험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학년이 거의 끝나는 4월에 바로 WMS에 전학을 하자마자 나를 숨겨진 보석으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세영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5과목 AP 시험 준비를 당장 시작했다. 한달 동안 선생님들의 놀라운 지도와 교장 선생님의 개인적인 격려로 AP Language, US History, AP Biology를 포함하여 5과목 AP 모두 4점 이상의 성적을 얻었다. 교장 선생님께서 SAT도 준비해 주셔서 SAT도 2300점을 받았다. 어떤 학교도 나에게 이런 용기와 기회를 주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WMS에 감사한다.

WMS에 오기 전에 나는 공부할 동기와 목적이 없어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싫었다. 무단결석일이 너무 많아서 교육

학교 문의) 5851 Newman St, Cypress, CA90630
714-995-1900 / www.wisdommissionschool.com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성탄을 축하합니다!



글로벌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 지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15
3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오후 1:00
유아유치부 오전 9:15, 10:45, 오후 12:45
유초등부 오전 9:15, 10:45, 오후 12:45
중고등부 오전 10:45
한어중고등부 오전 10:45
한글학교 오후 1:15
금요일 중고등부 오후 8:00
토요일 한어청년부 오후 8:00
영어청년대학부 오후 8:00
매일(월-토) 말씀묵상 새벽예배 평일 오전 5:00 토요일 오전 6:00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 www.igmc.org



올림픽장로교회

담임목사 : 정 장수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무엇을 위한 인연인가?

열왕기상 17:8-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아합왕 때 그가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으면서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야 했는데, 그는 이성 자율주의적 신앙 경향의 제멋대로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정통성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시집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던 미신 우상을 가지고 왔고, 원래 의지심이 약하고 인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아합을 쉽게 사로잡아서 왕비가 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비인 이세벨이 실제적인 통치권을 잡게 되면서 전 이스라엘의 비극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제사장을 850명이나 세워서 국비를 생활을 보장하게 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권력으로 바른 진리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세금도 과다 징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죽대 없이 신앙 인격이 뿌리내리지 못한 믿음 약한 사람들은 우선 육신의 형편이 될 시달리며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신앙을 헌신처럼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변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엄청난 불행은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아합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밤에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그 땅에 초목이 살 수 없도록 하셔서 사람들마저 굶어 죽을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아합에게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릇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며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불들어 쓰시는 사역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열성을 다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한 최저 생계대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으로 그렇게 그 곳에 있던 중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시대의 물이 다 말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을 찾아 나섰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강물

마름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 제일 주의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신 후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벗어나게 하시고 훨씬 더 나은 대책을 예비해 주심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릇 시냇가는 편히 누워 잘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여러 날을 기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를 공개하도록 예비해 주신 것은 그가 그릇 시냇가에서의 시련에 합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정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고 청하고는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를 향해 "정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겠느니라"

이를 잘못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빼앗아 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말씀에 기대를 걸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음으로 실천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엘리야를 처음 모셨을 때는 아마 구세주

와 같이 하나님처럼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르밧 여인은 자신의 것으로 공개하듯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부나 그 집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섬기는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고 섬기는 일을 귀찮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시험에 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나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푸념합니다. 그동안 엘리야 덕분에 살아왔던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죽은 그 아이를 달라하여 그가 우거하는 다락방으로 옮겨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하며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할 일없이 과부의 공개만 받으며 살아왔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로 인하여 이곳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푸념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과 그 아들의 죽음은 육신의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적인 구원까지 얻어야 하는 목적으로 맺어주시는 것이며, 나태해진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각성시켜 분발하게 하고 사역에 새로운 열심과 함께 새 출발을 시켜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도하신 이유였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 속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는다고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도리어 영적인 소망에 믿음으로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환란을 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실패와 쓰라린 수모와 곤욕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역올한 손해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위한 자격 갖추기를 서둘지 않고 허무맹랑한 일에 골몰하며 시간과 정욕을 잘못 허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고난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무슨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도한 일이 적중되어 성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회개하고 엘리야도 과부에게 영적인 소망을 일깨워 주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 엘리야와 과부에게 기대하셨던 영적인 소망이 바른 자세로 회복을 보게 되니 죽은 아들의 영혼을 되돌려 주심으로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와 과부의 인연은 무엇을 위한 인연인지, 나와 교회, 목사님과의 인연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정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i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자동차 도네이션

**아리조나 인디오 선교사에게
자동차가 절실 하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도네이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Tel. 424 - 220 - 0360 (전 에스더 선교사)
213 - 718 - 1512

예수님은 이방의 빛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할례를 받은 8일이 되어 성전에 가셨을 때, 경건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눅2:30-32)라고 찬송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국을 구하는 사명이 있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므온이 한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시므온이 예언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방의 빛”(a light for the Gentiles)이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42:6, 49:6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단수로 표현된 이방의 빛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홀로 여호와와 동등으로서 이방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47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하며 외치는 것도 오직 구약에서 예언된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을 전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박해함으로 사명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사도적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정통적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불고기맛”으로 특징지어지는 교회 즉, “불러서 고치고 기르며 맞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든 목표는 선교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교적 교회”(missionary church)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God's missionary people)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사명을 우리가 나누어 지게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 되신 예수님에게, 선민 유대인의 뿌리진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꼭 기억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신약이 말하는 교회의 사명은 다음에 있는데, 첫째로 “케리그마”(선포, proclamation), 둘째로 “코이노니아”(교제, fellowship), 셋째로 “디아코니아”(봉사, serv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투리아”(증거, witness)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방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계 속에 선포를, 타문화권과의 교제를, 교회 안에만 묶이지 않는 봉사를, 그리고 열방까지 증거함을 통하여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별 예외 없이 늘 깜깜한 밤에 귀가하는 저에게는 불꺼진 거실이 익숙합니다. 창문이 제대로 닫혔나 한 번씩 점검하고,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늘 깜깜했던 거실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저를 반겨줍니다. 향기마저 은은한 나무 냄새가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제는 잠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앉아 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방으로 올라갑니다.

늦은 귀가에 늘 깜깜했던 거실이었습니다. 썰렁하기까지 했던 거실이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로 따뜻해졌습니다. 동부에서 살 때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집 바깥 뜰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습니다. 귀가시 반짝거리고 있는 우리 집을 보면 꼭 누가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서 쫄쫄 얼어붙은 마음이 늘 훈훈히 녹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무리 추워도 춥지 않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아내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늦게 귀가하는 아들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뜨개질을 하면서, 물 한잔 드시

고, 마당에 잠시 나왔다가 서성이시면서, 아직 널려 있는 빨래 걸어 빨래 개키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장가가며 떠난 어머니가 있는 집, 늘 기다려 주시던 어머니도 한참 떠나 있었네요. 바쁜 세월이 썰렁하게 식어가는 거실마냥, 내 맘도 차가운 별판이 되어 식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늦은 밤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아무도 없는 거실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니 괜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아들 방만 늦은 밤까지 자기 일에 바빠 불이 밝혀져 있고, 새벽같이 출근하는 큰 딸 방도 꺼져 있고, 하루 일과에 쉬 지치는 아내도, 아

빠 오면 늘 뛰어 나와 안겨주는 막내 딸도 꿈나라로 간지 오래인듯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끝까지 기다려줘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외로워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리 마음에 밝혀 줍니다. 태평양 앞에 서서, 지는 해 보며 건너편 어머니 생각에 지친 마음을 달랠데, 이제는 한 해가 저무는 쓸쓸한 마음에 따뜻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켜 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8) 말씀하신 주님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늘 기다려주셨던 어머니도 떠난 빈자리에는 늘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늘 기다리셨던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따뜻합니다. 아니, 1년 365일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셨던 주님 때문에 따뜻했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크리스마스 불빛을 밝히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여러해 전에 있었던 실화를 소개합니다. 보스턴시 근교 소머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당국에서는 시청앞 광장에 첫번 성탄절의 모습을 재현시켜 놓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마구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의 남편 요셉,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작은 도시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당국에서는 성탄절 당일 성대하고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지기로 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한 장난꾼이 아기 예수 상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마리아, 요셉, 양치던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모형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 상만이 없어진 것입니다. 당황한 시당국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 사실을 알리면서 아기 예수 상을 제 자리에 갖다 놓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장난꾼의 마음이 움직여졌

지 아기 예수 상은 성탄절 이전에 다시 자기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무언의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성탄절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동방박사들의 환금, 유행, 몰락 등의 멋진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는 의미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로맨틱하고 즐기는 ‘할러데이’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정작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행, 파티, 쇼핑이 주 관심 사항입니다. 성탄절 당일 예배는 아예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왜 성탄절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성탄의 주인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여야만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써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본질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진 모습이라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탄의 본질 회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주인공의 자리로 되돌려 놓도록 합시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됨. 30년이상 가래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농담이들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세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화개해지면서 종양이 들어온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통 식욕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전자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봉(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세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혜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광(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푹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애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앉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년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34

옛 고사성어에 고침단명(高枕短命) : 베개를 높여 베면 오래 살지 못한다
 배개를 높여 베면 오래 살지 못한다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게 두고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수도불복(水土不服) : 물이나 풍토가 몸에 맞지 않아 위장이 나빠진 다 라는 들어본적한 말이 있습니다. * 이 오디오가 속담에 병을 숨기는 자에게는 약이 없다. *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는- 아라비아 격언과 오금지희(五禽之戲) 라고해서 다섯 종류의 짐승 호랑이, 곰, 원숭이, 새, 사슴의 자세로 근육을 부드럽게 하여 혈액이 잘 돌게 하는 중국의 화타가 만든 양생법(養生法)법도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환자는 고침 길이 없다 라는 말씀을 상기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병들로 부터 치유와 예방이 가능한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스라엘에서만 머물렀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민족으로 처음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 오늘날의 중대장급인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1절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때 베드로는 감옥탈출 사건 이후로 옴바라하는 동네에 피신하여 있었을 때입니다. 9절로 이튿날 처회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 또 두번째 소리 있되 하 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은 배가 고파도 먹지 않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일 있던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24절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켜 가로되 일어나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인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물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뇨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일이 있던 후로 고넬료와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되었고 복음이 이방민족에게도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병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병의 원인의 95%는 혈액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효과를 줄수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러튼 내셔널영양센터	714.690.0120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몬 캘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예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엘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올림픽캘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로랜하이즈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셔널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회 2014 송년모임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악을 정복하고
평화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동문

일시 : 2014년 12월 29일 5:00 PM

장소 : 아름다운 동산교회(최명환 목사시무) / 1382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교회 전화 : 562-868-6361 문의 : 714-883-1328(고영준 목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회에서 송년모임을 마련하고 동문들을 초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부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장: 강신권 목사
송년모임 운영팀장: 고영준 목사

동문명단 (1981 - 2014)

- 강병호, 강상민, 강숙희, 강승배, 강신권, 강윤옥, 강정자, 강제섭, 강지원, 강철해, 강현애, 강혜숙, 강희분, 계단열, 고영준, 고현민, 고희열, 고희근, 공경애, 공태원, 곽내연, 구상순, 권상길, 권성광, 권순월, 권용일, 권응구, 김경목, 김경순, 김경준, 김광래, 김광성, 김광호, 김그레이스, 김근애, 김금원, 김기필, 김나형, 김남수, 김대경, 김대규, 김대석, 김대용, 김덕애, 김도경, 김도윤, 김동원, 김동철, 김동현, 김란이, 김명선, 김명수, 김명숙, 김명옥, 김무년, 김문자, 김미경, 김민호, 김병덕, 김병진, 김병호, 김상복, 김상원, 김사론, 김성국, 김성동, 김성렬, 김성신, 김성옥, 김성욱, 김성인, 김송현, 김수영, 김순호, 김안수, 김양덕, 김영광, 김영규, 김영대, 김영애, 김영옥, 김영자, 김오경, 김요한, 김용주, 김용준, 김용호, 김용호, 김유정, 김은혜, 김이경, 김인규, 김인찬, 김일권, 김일호, 김재무, 김재성, 김재철, 김재훈, 김정국, 김정미, 김정민, 김정용, 김정호, 김정훈, 김종수, 김종용, 김종원, 김종익, 김종근, 김종호, 김지훈, 김진우, 김창식, 김창우, 김철수, 김춘금, 김춘실, 김충립, 김태년, 김태우, 김한혜, 김해영, 김현권, 김형구, 김혜성, 김혜인, 김호근, 김홍식, 김화순, 김효영, 김홍수, 남창영, 노상용, 노신애, 노차복, 도연수, 도현아, 도효숙, 류지원, 문성수, 문영섭, 문영용, 문한보, 민준기, 박 구, 박 환, 박경민, 박경수, 박경희, 박광순, 박광자, 박광호, 박덕원, 박동훈, 박두헌, 박명석, 박문성, 박문자, 박미경, 박브리실라, 박성숙, 박성웅, 박숙경, 박오선, 박옥현, 박은수, 박은우, 박재구, 박정규, 박정숙, 박정인, 박종우, 박종희, 박지범, 박진걸, 박춘란, 박충기, 박충길, 박태권, 박태석, 박하룡, 박해리, 박형택, 박흥수, 배선용, 배선홍, 백경흠, 백란혜, 백문경, 백선용, 백운희, 백정수, 백철현, 백희숙, 변기철, 변윤석, 변정숙, 봉성진, 서문욱, 서미경, 서미숙, 서성호, 서숙자, 서영덕, 서요한, 서재열, 서정일, 서종영, 선광우, 선병희, 성경식, 성민수, 성진호, 소순임, 손성락, 손익환, 손점옥, 손태환, 송금주, 송양옥, 송영걸, 송영세, 송지영, 송창호, 신 행, 신동희, 신미경, 신숙기, 신정현, 신태휘, 심사무엘, 심취섭, 안드레, 안드보라, 안병섭, 안선신, 안성자, 안성철, 안성희, 안요한, 안은희, 안호영, 양광욱, 양기호, 양문국, 양옥석, 양인희, 양정희, 양태진, 양화라, 어광용, 어재선, 엄재선, 여흥기, 염혜경, 오명진, 오병각, 오병익, 오승훈, 오재성, 오춘란, 오충성, 왕정훈, 우광진, 우상림, 우장훈, 우택균, 유기훈, 유미숙, 유성일, 유원경, 유영열, 유의찬, 유창식, 유희성, 윤 훈, 윤건창, 윤경원, 윤기범, 윤병환, 윤사무엘, 윤석열, 윤성희, 윤승식, 윤여흥, 윤영주, 윤요한, 윤향분, 윤화순, 이Brian, 이강신, 이경주, 이경철, 이경해, 이경화, 이계인, 이고명, 이국진, 이규성, 이규유, 이규해, 이근식, 이대선, 이대원, 이도형, 이동기, 이말지, 이명철, 이미란, 이민중, 이병욱, 이병일, 이상국, 이상익, 이상익, 이상훈, 이석재, 이석주, 이선중, 이성실, 이성원, 이성일, 이성준, 이성희, 이수일, 이숙자, 이순희, 이승용, 이승재, 이승진, 이신일, 이양식, 이여호수아, 이연탁, 이영관, 이영미, 이영숙, 이영일, 이영재, 이영진, 이영호, 이완순, 이용덕, 이용만, 이용식, 이용일, 이용훈, 이운용, 이원복, 이원오, 이윤일, 이은희, 이인옥, 이장욱, 이장호, 이재건, 이재국, 이정근, 이정문, 이정옥, 이정우, 이정하, 이지영, 이진규, 이진형, 이철환, 이충만, 이충수, 이충애, 이택수, 이풍우, 이한나, 이한섭, 이한성, 이행지, 이현규, 이현동, 이현삼, 이현숙, 이형근, 이혜돈, 이혜숙, 이혜옥, 이혜인, 이호성, 이홍권, 이희수, 인관일, 인우자, 임갑순, 임경은, 임문순, 임성필, 임세준, 임의숙, 임정국, 임종혁, 임태수, 임한열, 임흥순, 장기석, 장대식, 장덕수, 장문현, 장미나, 장병철, 장성영, 장순영, 장영애, 장영자, 장영호, 장우상, 장주원, 장진기, 장흥국, 전광희, 전기봉, 전민구, 전상욱, 전상호, 전성규, 전세광, 전영상, 전영훈, 전요셉, 전인순, 전제민, 전종락, 전진주, 전창연, 전태오, 전호제, 전희천, 정 산, 정경호, 정광준, 정기형, 정삼순, 정성광, 정성환, 정순득, 정요한, 정운복, 정인춘, 정정식, 정중환, 정한신, 정혜진, 정희중, 조영제, 조용규, 조용승, 조인구, 조학산, 주 덕, 주정자, 지석주, 지원수, 지용덕, 지종근, 지홍섭, 진춘진, 차경미, 차지훈, 채영석, 천동현, 천종익, 천태호, 최 영, 최 인, 최 철, 최낙영, 최낙훈, 최남영, 최동민, 최동욱, 최명환, 최병관, 최선경, 최수남, 최수영, 최승규, 최연신, 최영미, 최영자, 최영환, 최영희, 최우식, 최임규, 최재영, 최정인, 최종민, 최종철, 최지영, 최진수, 최치호, 최피터, 최형영, 최혜순, 탁기천, 표성준, 하덕규, 한미선, 한영길, 한영순, 한영호, 한웅정, 한철호, 함레베카, 허만진, 현희덕, 홍성원, 홍성학, 홍성혁, 홍숙배, 홍체체, 황 식, 황송옥, 황영희, 황예행, 황의광, 황인철, 황찬문, 황혜진, 황희수, 김병찬, 김상은, 김용숙, 김은정, 김주훈, 김중환, 김혁동, 류재근, 박용규, 박종희, 박지예, 박화원, 배혜영, 서영아, 송은화, 안요한, 안유정, 양승훈, 오정근, 원종록, 유인선, 윤민호, 윤석한, 이명환, 이성희, 이순자, 이요셉, 이재일, 이종진, 인형식, 임광생, 임 만, 임정훈, 정선애, 정이나, 정희중, 조효현, 최광준, 최재영, 최재호, 최정실, 박노현, 신승원, 이주상, 황수정, 박무수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회
15605 Carmenita Road Santa Fe Springs, CA 90670
회장 강신권 목사 T.(562) 761 - 5242 / 서기 김태우 목사 T.(714) 770 - 9628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21

UCS 신학대학교



1543 W. Olympic Blvd, 3F.
LA, CA 90015
T. 213-434-3456
www.ucsuniversity.com

담임목사: 김영규 목사

1880 W 220th St, Torrance, CA 90501
T. (310)328-7020 / wpca.org

방주교회

주일 예배 11:00 AM
주일 학교 11:00 AM
수요 예배 7:00 PM



미주서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익 목사

1880 W 220th St, Torrance, CA 90501
T. (310)328-7020 / wpca.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11:00AM
주일3부예배 1:30PM
EM 예배 1:30PM
금요찬양예배 7:45PM
새벽기도회 5:30AM
영아부 11:00AM
유치부 11:00AM
유년부 11:00AM
중고등부 11:00AM



구인성장로교회

담임목사: 현연섭 목사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kuinholy@hanmail.net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엔키아 선교회

- ▲회장: 김홍철
- ▲부회장: 김창호
- ▲총무: 이지애
- 문의 : (310)404-6219



기독의료상조회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월 \$40 ~ \$175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 T.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성광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상훈 목사

1359 W. 24th Street Los Angeles, CA 90007
T. 323-732-3440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CMF 선교원

가정을 세우는 CMFMinistries,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대표: 김철민 장로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483-0191
714-493-0191
562-684-4422
www.GodFamily.com
www.CMFM.org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광염교회

담임목사: 정우성 목사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성경공부 오후7:30 (화)
오전10:30 (수)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림교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일(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성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 45)
1. 민족을 낚아서 2. 신앙을 낚아서 3. 국가를 낚아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테레주)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EM) 오전 1:1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말씀강화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45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지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강산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w.com

1부예배 오전 8:00 장애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힐로우십홀)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오후 12:00(본성)

최호선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8: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타코마 기독교회연합회, 2014 성탄 축하의 밤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 사랑 나누며 하나됨 이뤄



타코마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초청된 어린이 찬양팀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타코마 지역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한 목소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탄절 연합예배가 타코마기독교회연합회(회장 이동기 목사) 주최로 지난 14일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열렸다.

성탄 찬양예배는 타코마 지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교단과 교파를 넘어 연합 예배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탄을 기뻐하며 구속과 영생의 은혜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찬양예배는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신나는 캐롤과 성탄 찬송곡, CCM, 댄스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펼쳐지며 참석자 모두가 기쁨을 나눴다.

타코마기독교회연합회 부회장인 최

성은 목사 사회로 시작된 성탄 연합예배는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에 이어 회중 모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했다.

타코마 각 교회 찬양대와 성도들은 “문들아 머리들여라”, “사랑이 예 오셨네”, “그 사랑 얼마나”, “저들 밖에 한 밤중에”, “Dude, You Hear What I Hear?”, “참 반가운 성도여” 등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했다.

또한 어린이 찬양팀과 코너스톤 남성합창단이 참여해 “Thank you”와 “놀라운 사랑”을 각각 노래하며 자리를 빛냈고, 성탄 뮤지컬팀은 “We’ve Been Waiting All Year” 공연을 펼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설교는 이동기 목사가 “그들은, 거기, 왜?”(마태복음 2:1-11)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임규영 목사(새생명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황준호 기자

선교후원, 하나님 뜻과 나라 위한 우리의 사명

황선규 목사 고별설교 전례



워싱턴주 웨드럴웨이 등대교회에서 열린 제 74차 기도성회에서 황선규 목사가 고별설교를 전하고 있다.

워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대표 황선규 목사는 지난 18일, 웨드럴웨이 등대교회(담임 박요한 목사)에서 열린 제 74차 기도성회에서 고별설교를 전하고 “지난 6년 동안 기도성회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했다.

워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회는 내년부터 현 사무총장인 원호 목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루길 기도하고 있다.

이날 황선규 목사는 ‘선교 헌신자의 풍성한 삶’(렘 4:17-20)이란 설교를 전하며 자신의 선교를 소회했다.

황 목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교 후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약속을 보면 오히려 선교 후원은 선교지의 유익뿐만 아니라 선교 후원자의 유익을 위협임을 알 수 있다”며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선교 후원에 대한 요구와 정직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왔다”고 전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선교 후원은 듣는 이에 따라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선교 후원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황 목사는 이어 자신의 삶에 대해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소개했다. 그는 “선교사 후원을 위해 83세의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

다 보면 교회에서조차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받으신 열매와 고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씩씩 받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한 번은 한국에서 1달 동안 후방선교사를 동원하기 위해 목적지도 얻지 못하고 한국에 나갔었다”며 “결국 서울역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일정을 채워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루도 쉬없이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처럼 선교헌금을 힘껏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실 것”이라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가치 있게 드리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자”고 덧붙였다.

황 목사는 끝으로 “지금까지 워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를 위해 힘써준 모든 임원들과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경배와 찬양 사역을 위해 수고한 강 사무엘 목사와 찬양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열방을 품는 기도 성회(WAP-CAN)의 상임이사회 모임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웨드럴웨이 새교회(담임 원호 목사)에서 있게 된다.

황준호 기자

뉴욕전도협의회

노란 손수건 DAY 전도세미나 개최

정진모 목사 강사로 참여, 5명 시골교회가 600명이 되기까지



뉴욕전도협의회 개최, '노란 손수건 DAY 전도세미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허윤준 목사)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정진모 목사(계룡시 평화장로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노란 손수건 DAY 전도세미나'를 열고, 3일간 아침과 저녁으로 총 6회의 전도훈련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뉴욕의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폭우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세미나를 통해 전도의 동기를 점검하는 열정을 보였다.

'노란 손수건 DAY'란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후 한 날을 정해 놓고 그날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날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날을 위해 모두 일상불란하게 움직이며 기도하는 새로운 전도 개념이다.

노란 손수건 DAY 전도 방법은 기존의 다양한 전도 방법과는 차별화된 전도 방법으로, 기존의 총동원 주일과 같은 전도방법이 많은 재정과 인원동원에 비해 결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을 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전도방법으로 개발한 것이다.

정진모 목사는 이 전도법에 대해 "모든 성도들이 각자 전도 후보자를 처음에는 8명, 그 다음엔 4명, 최종적으로는 2명으로 선택해 교회로 인도하는 실질적이고도 목표지향적인 전도운동"이라며 "그동안의 전도방법들은 특정한 몇 명의 스타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었다면

이 전도법은 전 교인들을 하나같이 전도 인화시키는 동시에 행사가 끝나면 교회가 두 배로 성장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전도법을 창안한 정진모 목사가 계룡시 평화교회에 부임할 당시에는 단 5명에 불과한 시골교회였으나 '노란 손수건 DAY' 운동을 적극 펼쳐 현재 재적 600명의 교회로 성장했다.

노란 손수건 DAY 전도방법을 도입한 교회는 노란 손수건 DAY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도운동을 정식으로 시작한다. 이때 모든 성도들은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기 시작하며, 교회에서는 40일 릴레이 기도, 평신도 초청 간증, 노란 손수건 DAY 결단식 등의 행사와 함께 상황판을 게시해 전 교회적으로 모든 초점을 영혼 구원에 맞추게 된다.

전도를 위한 접근 방법이 있어서도 믿지 않는 이들이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며 실행하는 전도법이다.

전도협의회 허윤준 회장은 이번 세미나와 관련,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전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뉴욕의 성도들의 제안으로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면서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공식적인 전도 훈련시간을 통해 평신도를 전도자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말하며 이 세미나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다.

김대원 기자

북한인권 광고 타임스스퀘어에 게시

ICNK, 북한 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ICNK가 타임스스퀘어를 포함해 뉴욕 맨하탄에 게시하는 공익광고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공익광고를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에 게재한다.

이 광고는 ICNK가 최근 유엔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환영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꽃제비 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의 반인도범죄는 국가의 최고위급에 의해 제정된 정책에 의해서 수십 년간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북한인권 결의안의 주요 선언을 인용했다.

또 ICNK는 "북한 반인도범죄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는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광고는 22일부터 7일간, 타임스스퀘어뿐만 아니라 뉴욕시 한인타운인 32번

가와, 북한대표부 인근에 위치한 맨하탄의 대표적인 변화가인 42번가 등 3곳의 전화박스 광고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물인 보고서에 기초해 유럽과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것이며, 유엔총회 투표를 통해 116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광고를 기획한 ICNK 사무국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결의안의 권고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안보리의 논의와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안보리를 촉구하기 위해, 전세계 관광객이 모여 있고 유엔 본부가 자리하고 있는 맨하탄에 공익광고를 내는 것이다"라고 광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나래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8: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심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승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은일, 미음, 김,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F.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넷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 전도하는/환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 428-7878 / F. (323) 932-0788 / kuinhol@hanmail.net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 isaacdev@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신.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지(고)Healing), 기르(마)uring), 맞선(For)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밀종교회 / 토요일-17가와버몬트 코너-100 Nav Hayward
주중새벽-LASFC대안(66)가와리퍼트 코너-520 S. Fayette Park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지평을 넓혀라,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해-내며,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밀종교회 / 토요일-17가와버몬트 코너-100 Nav Hayward
주중새벽-LASFC대안(66)가와리퍼트 코너-520 S. Fayette Park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인(2)세를 복음화하며, 새(2)기(2)정(2)을 세우며, 선교(2)영(2)을 증(2)진(2)하는 교회

버질중학교 (1가와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에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 /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주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물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재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샘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 (47세 여) - 구인외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러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니실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감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기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틀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 (84세 여) - 만성숙환으로 인사불성에 장례준비하라 의사 권유에 미라팜 며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식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 (60대 여) - 의료사고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다사 미라팜" 을 검색하면 나눔
-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
-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 (50대 여) - 밤새 잠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 (60대 남) - 하루 5캡슐로 전립선이 많이 호전됐다.
- (50대 여) - 일주일 복용 후 머리 감은 후 화장실 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로 빠진 머리가 한 올도 안 빠진다.
- (70대 남) - 전립선암, 대장암 수술 이후 다리 전체 절임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됐다.
- (50대 남) - 쓸개 수술 후 3년동안 하루 6번 설사가 이를 복용 후 멈추었다.
- (60대 남) - 신장투석 중 가려운 증세가 없어지고 인 성분이 툭 떨어졌다.
- (80대 여) - 각종 암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병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되고 있음.
- (50대 남 외국인) - 대장암 환자. 미라팜-22를 2병째 먹고 대변 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복됨.
- (50대 여 외국인) - 체제가 유방암 수술 후 개발하여 미라팜-22 복용 후 6개월 만에 완치 관정받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국 미라팜-22 독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현재 사업 중임.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받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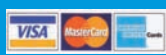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영국성공회, 사상 첫 여성 주교 임명



영국성공회의 리비 레인 주교 ©Church of England/Flickr, Kippa Matthews

영국성공회가 17일(현지시각) 사상 첫 여성 주교를 임명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성공회는 리비 레인(Libby Lane·48) 체스터교구 사제를 맨체스터 스톡포트교구의 신임 주교로 선임했다.

이는 지난 7월 영국성공회 최고위원회에서 여성 주교를 허용하는 교회법 개정안을 480년 만에 처음으로 통과시킨 이후 5개월 만이다. 레인 주교는 여왕의 재가를 거쳐 내년 1월 26일 요크대성당에서 스톡포트 제8대 주교로 취임할 예정이다.

옥스퍼드대 출신의 레인 주교는 영국성공회가 사제직을 여성에게 처음 개방한 1994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레인 신임 주교는 체스터자치구 청사에서 “스톡포트에서 주교로 봉사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이날은 저와 교회에 매우 뜻깊다. 영국교회는 영국 내 모든 단체에서 모든 이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타인의 삶, 특히 소외된 이들의 삶을 일컫는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전파할 수 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청중들에게 파키스탄 학교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과 기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성공회의 여성 주교 임명은 고위 성직에 대한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중대하고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기혼자인 레인 주교는 성공회 사제인 남편과 더불어 서품을 받아, 영국성공회 최초의 부부 동시 서품 기록도 지니고 있다. 현재 맨체스터 공학의 군 교회에서 봉직 중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체스터교구는 “더비셔주 태생의 레인 주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의 팬이며 평소 색소폰 연주를 즐긴다”고 소개했다.

손현정 기자

IS, 전사자 속출하고 세력 축소되며 붕괴 조짐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내에 이탈 조짐이 일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의 보도에 의하면, IS는 최근 전사자들이 속출하고 세력 확장이 지지부진하며, 점령 지역을 하나 둘씩 빼앗기고 있다.

시리아 동부인 데이르에조르의 한 활동가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IS는 사기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바닥까지 꺾인 상태”라면서 “시리아 조직원들은(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 중이며, 모험을 즐기려던 외국인 조직원들도 이제 지쳐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활동가는 “IS가 수도로 선언한 시리아 동부 락카에서, 도망가려다 적발된 외국인 조직원 100명이 처형됐다”고 주장했다.

FT는 현지 주민들의 말을 인용, 지난 달 락카에서 우즈베키스탄 및 체첸 출신 IS 조직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열은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 북부 국경도시 코바니를, 몇 달째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S는 지난 9월

부터 코바니 점령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진퇴를 거듭 중이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코바니에서만 IS 조직원 1,400여명이 사망했다. SOHR은 “지도부가 대규모 희생을 치를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코바니에 전력을 집중하는데 대해, IS 조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SOHR은 “시리아 쿠르드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가 코바니 인근에서 마을 8곳을 탈환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군 페쉬메르가도 전날 이라크 북부 신자르산 일대 7개 마을과 주마르시를 탈환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초부터 IS에 의해 봉쇄되거나 IS에 점령당했던 지역들로, 특히 신자르 지역의 탈환은 IS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한 지난 6월 이후 이라크 북부에서 페쉬메르가가 거둔 가장 큰 성과다.

쿠르드군에 의해 산자르 지역의 IS 봉쇄망이 풀리면서, 야지디족 주민 등 수천 명이 탈출로를 확보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강혜진 기자

이라크 교인들에게

‘스스로 난민이었던 예수’가 전부

화이트 대주교, 성탄 메시지 전해

바그다드 유일의 성공회 지도자가 “이라크에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스스로 난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전했다.

이슬람국가(IS)의 협박 가운데 바그다드를 떠나 베들레헴에 피신 중인 앤드류 화이트 대주교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의 성탄 메시지를 전달했다.

화이트 대주교는 ‘예수를 위한 난민캠프’가 바그다드 북쪽에 있다고 전했다. 이곳은 IS의 손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웃고 먹을 것을 제공하던 곳으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화이트 대주교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 또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 난민의 생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화이트 대주교는 “바그다드에서 일부

이라크인들이 나를 찾아왔던 날을 절대 잊을 수 없다. 자살폭탄테러·로켓포 등 폭력에 둘러싸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놀랐다. 한 청년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예수가 남은 전부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바로 아기 예수가 남긴 사람이다. 이 사랑은 중동의 우리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가 의미하는 모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사랑해야 하고, 그 응답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히 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오병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아래평생찬양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민경엽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아지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a)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s.org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기도회 주일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로템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THEM.COM	
고현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허규암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남상국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록) 금요일 오후 7시(계시록 7교회)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정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장년 1부 9:00am EM 1:30pm 장년 2부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Youth 예배 12:15pm 토 6:00am Children 11:00am 새생명한인교회 15 Goddard, Irvine CA 92618 T.(949)341-0022 / (949)398-7303 www.newlifekpc.org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어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vd. Yorba Linda, CA 92886(교외 사무실)	
권혁빈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교동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이경남 담임목사 주일 삼강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성경 66권해설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의 사랑을 힘으로 행함 받아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기쁨과 감사로 온전신앙이 무릇이지 못함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인터넷 생방송등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명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최국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토)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목요성령침례 오후 7:30 (토) 오전 10:00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학교 사회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를 깨 예배하는 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회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캐리어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US 군목 및 채플린 세미나

여러분 자녀들을 미군선교사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사역자여러분! 전세계 미군의 주둔지에서 개척해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에게 미국 내 병원 및 관공서 채플린을 권합니다. (년봉 4만불이상)

미군 현역 군목들과 채플린들이 군목을
지원하는 방법과 혜택 그리고 채플린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드리는 공개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특히 유학생들이나 서류미비자이지만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합법체류가 가능한
분들이 미군군목을 갈 수 있는
과정도 소개합니다.



"병사에게 심려를 주는 한인목사"



****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약이 필요합니다. ****

· 일시 : 2015년 1월 26일 AM 8시 - PM 4시

· 장소 : LA 온누리 교회

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Tel : (213)382-5658

· 참가비 : \$35불 (점심포함)

· 주최 : US 군목 및 채플린 연구소

US Chaplain Research Center

· 강사



Chaplain, Rev. Stephen Feinstein



Chaplain, Rev. Joseph Choi

그 외 현역 미국 군목과 안수 담당 관계자들이 강사로 참석합니다.

1510 Pearl Street Santa Monica, CA 90405 / Tel. (310) 502 - 9999 / smkckim@gmail.com

문의 및 예약 : 행정실장 김경렬 목사

이슬람교도 레자 아슬란의 예수론 비판 (2)

I. 방법론적 오류: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의 분리

1. 역사의 예수를 복음서의 예수와 분리

이슬람은 역사적 교회가 경전으로 읽는 복음서의 예수상(像)은 본래적 예수상이 아니라 복음서 필자들에게 의하여 각색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 사이를 방법론적으로 분리시키고자 한다. “불신자들이 던지는 의혹에 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의 모습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의 모습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적 인물, 나사렛 예수의 거리감이 커져만 갔던 것이다.”(Reza Aslan, 『젤롯』, 16.)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이미 19세기 자유주의적 역사적 예수상 논고와 20세기 예수 세미나의 영지주의적 예수상 탐구의 방법론적 접근과 다른 것이 없다. 아슬란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슬람교도이다. 그는 1972년 이란에서 태어나 1979년 이란혁명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한때 복음주의 기독교에 심취했다가, 다시 가족의 종교인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이러한 이슬람적인 시각에서 보는 역사적 예수는, 복음서 필자들이 제시하는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한다. 그는 예수전기(傳記)로서 교회의 틀에 갇혀 있는 신적 존재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적인 베일을 벗기고자 하며, 역사적 예수를 유대의 독립과 민중들을 위해 싸운 혁명가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는 혁명가인 나사렛 예수상을 제시함으로써, 교회가 2천년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경배해 온 신앙적 예수 그리스도상에 도전하고 있다.

이슬람은 미국 보수 언론 폭스 TV의 공격적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고대 헬라어에 능숙하고 신약학 및 4개의 학위가 있는 종교학자’로서, 앵커가 보여준 이런 편견이 없는 진실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는 이 대답으로 오히려 반이슬람 감정에 대한 반성과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논쟁의 기회를 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책은 베스트셀러 톱에 랭크되었다(cafe.naver.com/sdfstptkd/2074182). 이 작품이 바로 『젤롯』이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탐구하는 데 고대 헬라어에 능숙하고 신약학과 중동의 종교사회학 학위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의 외부적인 조건이 될 수 있으나, 내면적이고 충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연구자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인격적 신앙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복음서 필자들의 기록들은 모두 후대의 왜곡 내지 종교적 왜곡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젤롯의 시각으로 교회적인 예수의 이미지를 변형

이슬람은 방법적으로 교회의 베일 속에 있는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베일을 벗기고, 역사적 사실의 예수를 그려내고자 한다. 이슬람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실증적 사실을 바탕으로, 신적 존재가 아닌 인간적 존재인 예수에 접근하고자 한다. 아슬란은 미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가 살았던 시대를 통해 그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본다. 예수가 다윗의 왕국을 복원할 메시아였는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 그 자신인지 어느 쪽이건 예수는 그의 시대의 산물이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했다.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메시아라 주장했다. 우리는 1세기 유대의 그 많은 메시아들 중에서 오로지 예수만을 기억한다.◎(뉴욕 중앙일보, “예수 전쟁” 부른 책 ‘젤롯’의 필자 레자 아슬란”: 04/15/2014 중앙일보 미주판 25면 기사입력: 04/14/2014 17:01). 그러나 이는 방법론적으로 일면적인 것이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단지 시대사적 접근으로써는, 나사렛 예수의 실재성을 밝힐 수 있으나 그의 내면적 세계와 그의 존재의 정체성은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의 그리스도 없는 순수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19세기 독일 괴팅겐의 신학자 마르틴 칼러(Martin Kähler)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린 소위 사실적 예수(so called historic Jesus)는 성경적이고 역사적 그리스도(biblical historical Christ)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성경적 예수는 신앙고백의 그리스도”라고 결정적으로 통찰한 바 있다. 필자도 역사적 예수를 파악함에 있어서 신앙과 사실의 불가결한 연결을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해석학적 실재론(hermeneutic realism)이다. 신약 복음서 저자들(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는 사실적으로 존재했던 역사적 예수에게서 신앙적 감화를 받았고, 이러한 신앙적 감화 자체가 역사적 예수를 보게 하는 중요한 신앙적 관점으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신앙적 관점을 떠난 중립적 순수 사실로서의 역사적 실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석학적 실재론이란, 실재란 해석자의 관점 안에서 해석되어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이슬람은 전통적 기독교의 예수상을 기독교인들이 허구적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하여, 이를 제거하고 예수를 정치적 혁명가로 그리고 있다. 아슬란은 기독교 신자들 머릿속에 각인된 예수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한다. 그는 교회가 가르치는 예수, 즉 절대자와 동일시되는 천상적인 존재로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온 인류를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과 평화를 가르친 신한 목자로 익숙해진 이미지, 현대인에게는 여전히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는 ‘예수’라는 존재가 행했다는 기적과 부활했다는 교회의 강요된 메시지 모든 것이 “꾸며낸 황당한 이야기” 내지 “완전한 날조”요 거짓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슬람은 예수라는 존재 앞에 드러워 있던 기독교적 장막들을 하나하나 걷고 그의 실체를 목격하고자 한다. 그는 기독교 신약학을 전공했으나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이슬람교도로서, 여태까지 기독교 전통신자들이 가져왔던 교회적인 예수의 이미지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반기독교적인 시각(an anti-Christian view)을 가지고 있다. 아슬란은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일반적으로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쪽 뺨마저 내어 주는 평화주의자로 묘사되는데, 이러한 습관적 이해는 그 당시의 정치적으로 불안한 세계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비정치적인 설교자라는 예수의 초상에 뿌리를 둔다. 이러한 예수의 모습이 완전히 날조(a complete fabrication)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 보았다. ... 분명히 예수는 무저항 비폭력주의자는 아니었다.”(Reza Aslan, Zealot, 민경식 역, 『젤롯』, 185.)

그러하여 이슬람은 역사적 예수를 오늘날 이슬람의 원리주의자 같이 로마지배 체제를 전복시키는 독립운동가 내지 사회혁명가로 그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베일을 걷어내는 학문적 실증적 접근이라고 하지만 그의 탐구의 이면에는

잠재적으로 신적 존재인 예수를 비하하고자 하는 이슬람교도적 반기독교적 정서가 도사리고 있다. 비록 그가 이슬람 신자이며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예수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 예수 전기(傳記)를 저술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방법론적 제한성에 포로되어 있다.

아슬란이 그려낸 역사적 예수론의 결정적인 오류는, 그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시도한 역사적 예수 탐구(일반적으로 제1탐구라고 함)의 관점을 반복하여,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그리스도를 분리하여 역사적 예수를 기독교적 복음서의 관점이 아닌 이슬람의 전사(戰士)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복음서 자료들 가운데 아슬란 자신의 관점에 맞지 않는 것을 역사적 예수의 본래의 모습에서 제거해 버리고, 이슬람의 투쟁적 전사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러니 아슬란에 의하여 그려진 역사적 예수란, 성경적 하나님의 아들 이기보다는 팔레스타인의 사회적으로 로마제도에 대항하여 일어난 민중으로서 정치적 혁명가였다.

이러한 예수상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 속에서,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고 살아가는 민중 팔레스타인들에게 하나의 혁명가적 비전을 불어 넣는 인물일 수는 있으나, 신약 4복음서와 역사적 교회가 가르쳐 주는 인류의 구속자와는 전혀 다른 인물인 것이다. 더욱이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적 예수는 원수를 대항하고 죽이는 혁명가적 투사가 아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 15:13)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마 5:44) 사랑하라고 가르친, 사랑의 교사로서의 역사적 예수와도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II. 이슬람은 신약성경의 고유한 텍스트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레자 아슬란의 예수 전기(傳記)는 하나의 논픽션(non-fiction)같이 그럴듯하게 보이나, 그가 상상력으로 그려낸 하나의 종교적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예수 전기는 말만 전기이지 자기가 임의로 선정한 역사적 사실의 자료에 문학적 상상력을 덧붙여, 사실처럼 보이게 하나 사실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 학자로서 아슬란은, 기독교 신자

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의 ‘렉치오 디비나’(Lectio Divina: 기록한 독서, 역사적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현재하시는 하나님(예수 그리스도)과의 교통을 가졌음)가 가져다 주는 신약성경의 고유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1. 실증주의적 역사 개념

레자 아슬란은 이슬람의 관점에서 신약성경이 지니는 고유한 텍스트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 텍스트의 세계란 이천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 신자들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공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루는 영적 공동체의 세계이다. 이는 해석학적 세계로서 복음서 저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시대적·공간적 제약을 넘어서서 신앙고백을 공유한 영적 세계를 말한다.

그러나 아슬란은 복음서 필자들이 철저히 성경적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아슬란은 그의 저서 전반에 걸쳐 복음서 저자들의 이러한 집필 동기 등을 이유로, 복음서가 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며 성경에 갇힌 해석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아슬란은 복음서 저자들이 발견한 나사렛 예수의 구속 복음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증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실증주의적 역사개념으로 역사적 예수상을 그려내면서, 복음서 저자들이 증언한 성경적 예수상을 왜곡하고 있다.

이슬람의 관점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복음서는 “하나같이 윤식되었고”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Reza Aslan, Zealot, 민경식 역, 『젤롯』, 93.)로서, “예수의 언행에 대한 목격담도 아니고 살아생전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쓴 것도 아니다”고 본다. 그는 복음서 필자들에게 현대주의적 비평적 관점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관찰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을 비평적으로 분석한다는 개념의 역사는 현대사회의 소산물로 이러한 현대적 역사 개념은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했으며 그들에게 역사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것”(Reza Aslan, Zealot, 민경식 역, 『젤롯』, 93.)이었다.

따라서 아슬란은 19세기와 20세기 역사적 예수에 관한 자유주의적 비평학적 논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본래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극단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계속)

부 고

서혜숙 사모

항상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저의 아내요, 저희들의 어머니이신 서혜숙 사모님께서 2014년 12월 22일 새벽 향년 5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 하셨습니다. 삼가 부고합니다.

✿입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

일시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가주 장의사(California Mortuary)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562)622-6393
집례 정해진 목사(남가주 명성교회 당회장)
■ 유가족 남편: 김중용 (Elijah) 목사
장녀: 김송현 (Rachel), 사위: 정기보
차녀: 김지선 (Sally)
■ 연락처 남편: 213-272-6031
장녀: 213-249-6924, 차녀: 213-281-1312

일시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가주 장의사(California Mortuary)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562)622-6393
집례 강신권 목사(세계 성경 장로교회 당회장)
■ 부고인 김만수 집사, 이요셉 목사
강신권 목사 (미주 장신대 동문회장)
신관영 회장 (전주교 남가주 동문회장)
전영훈 목사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동문회, 뉴욕 신학대학원 동문회)

일시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2시
장소 Glendale Forest Lawn Memorial Park
<Garden of Ascension>
1712 S. Glendale Ave.
Glendale, CA 91205 (800)204-3131
집례 윤태근 목사(성천 장로교회 당회장)

본 교회의 김중용(엘리아) 담임목사의 아내 서혜숙 사모님께서 2014년 12월 22일 소천 하셨습니다. 부고를 드립니다

본교의 52회 동문인 김중용(엘리아) 목사의 아내 서혜숙 사모님께서 2014년 12월 22일 소천 하셨습니다. 부고를 드립니다

본교의 22회 동문인 김중용(엘리아) 목사의 아내 서혜숙 사모님께서 2014년 12월 22일 소천 하셨습니다. 부고를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 일동

전주 고등학교 남가주 동문회

미주 장로회 신학 대학(원) 동문회

개별부고는 생략합니다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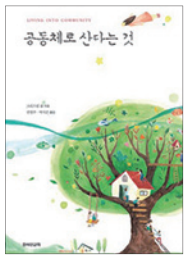


신간추천

공동체로 산다는 것

크리스틴 폴 | 조이선교회 | 304쪽

〈손대접〉, 〈약한 자의 친구〉로 국내에 알려진, 기독교 사회윤리학 교수인 저자는 오랜 기간 라브리와 라르쉬 등 기독교 공동체에서 직접 사역한 경험이 있다.



‘생동감 있고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에는 특정한 관계 유형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약속을 지키며 진실하게 살고 말하는 등 일상 속 사소한 실천들이 차곡차곡 쌓여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증언한다.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전우택 편저 | 새물결플러스 | 284쪽

‘증오와 배제의 논리를 넘어, 포용과 화합의 마당으로’라는 부제의 한반도평화연구원 총서. 연구원이 세 차례 개최한 포럼의 결과물이다.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내부의 시선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역사·신학적 관점으로 관점을 확대함으로써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개입하는 이데올로기 영향과 감정적 뒤틀림들을 발견한다.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 포이에마 | 2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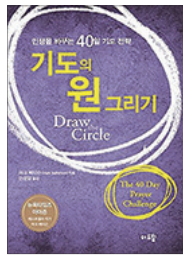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뭐든 빨리 배우길 원한다. 뒤쳐질까 전전긍긍하고, 또래들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생각에 남들보다 빨리 많이 가르치려 조바심을 낸다. 저자는 부모의 이런 비뚤어진 열망 때문에 학교가 아이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전락했고,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충만해야 할 유년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의 전면개정판.



기도의 원 그리기

마크 베타슨 | 더드림 | 324 쪽

40일 기도 자체에 마법의 힘이 숨어 있는 건 아니지만, 책에서 저자는 40일 기도가 매우 성경적인 전략이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길 원한다면, 우리도 예전의 일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그와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실 것이고, 새로운 은사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 아닌가.



REVIEW

‘진정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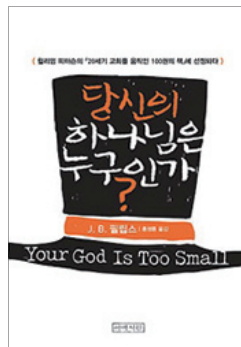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왜곡되거나 단편적인 ‘하나님 관념’ 극복

저자는 독자들의 ‘하나님 관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모두들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 무소부제, 사랑, 은혜, 공의, 진노, 영광’ 등을 떠올리겠지만,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 성품들만 떠올리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신의 뒤틀린, 혹은 단편적인 경험 탓에 하나님을 부적절하고 왜곡된 이미지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 하는 헛된 시도들이다. ‘진짜 하나님’을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상(像)에 끼워 맞추려 하기도 한다.

‘그런 하나님’은 때로 마음 속의 경찰(양심)이고 어린 시절의 아버지이며, 근엄한 노인이거나 유순한 존재이고, 완벽주의자이다. 규격화돼 상자 속에 있거나 최고경영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지만 장성하면 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데(고전 13:11), 그러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저자는 ‘그 하나님들이 왜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준다.

이렇듯 1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참 하나님’을 포착하지 못하도록 막는 ‘부적절한 하나님 관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J. B. 필립스 | 아바서원 | 200쪽

념’을 폭로한 뒤, 저자는 2부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특히 사람으로 내려오시어 하나님의 성품을 밝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철저히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천천히 설명함으로써, 신이 사람이 된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는 길은 부분적으로 지적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헌신의 문제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교회’와 ‘진정한 기독교’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70여년 전 작성된 이 글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그들이 변화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원제 ‘Your God is Too Small(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책이다. 윌리엄 J. 피터슨이 쓴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100 Christian Books that Changed the Century, 부흥과 개혁사)〉 중 한 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 박 신철

장년한국어주일예배	교육부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07:30	영아부 예배 -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1:45
2부 예배 - 오전 09:15	유아부 예배 -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1:45
3부 예배 - 오전 11:45	유지부 예배 -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1:45
4부 예배 - 오후 01:45	유년부 예배 -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1:45
	초등부 예배 -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1:45
주중예배	중등부 예배 -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1:45
새벽 예배 - 오전 05:30	고등부 예배 -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1:45
토요 예배 - 오전 06:00	한고등부 예배 - 오전 11:45
수요 예배 - 오후 07:30	대학부 예배 - 1부 오전 11:45

장년EM주일예배
주일 예배 - 오전 11:45

장애우예배
주일 예배 - 오전 11:3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www.inlandchurch.org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 이 중용

주일 1부 예배 9:00AM
 주일 2부 예배 11:00AM
 주일 3부 예배 2:00PM
 주일학교 11:00AM

중등부 예배 11:00AM(주일), 7:30PM(금)
 고등부 예배 11:00AM(주일), 7:30PM(금)
 대학부 모임 2:00PM(주일), 8:00PM(금)
 청년부 모임 1:30PM(주일), 8:00PM(금)
 수요 찬양 예배 7:30PM
 새벽 예배 5:30AM(화-토)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F. (310) 530-8400 / www.cornerstonetv.com

“살아 봐야 알게 되는 것” 저자 김관성 목사와 함께

삶으로 하나님 사랑 증명해야

‘함께 걷는 아우들’ 향한 잔소리와 위로, 신경질과 격려

김병삼 목사의 ‘사랑이 먼저다’

자타공인 ‘SNS 스타’ 김관성 목사(덕은침례교회)가 지난해 《살아 봐야 알게 되는 것》을 펴냈다. 김 목사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이 책에서 ‘함께 길을 가는 아우에게’라는 부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만나는 삶의 국면들에 대하여 부족한 듯” 형으로서 진심을 담아 따끔한 질책과 함께 ‘하늘 위로’를 건네고 있다. ‘눈물과 한숨 뿐인’ 삶일지라도 ‘영광과 박수를 받으며 가는 길’과 다르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뉠을 믿는다는 김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살아 봐야 알게 되는 것
김관성 | 넥서스CROSS | 256쪽

못 꺼냅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의 수준은 또래에 비해 컸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목회 준비,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이나 지금의 현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잔소리지만, 저 사람 말은 들어야겠는데... 사람이란 다른 이의 암보다 자신의 감기가 더 아픈 법인데, 좋게 봐 주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좀 더 좋아하시는 듯 합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구매를 신청하신 분들 중 청년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분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등 연세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나름대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고 문체도 아우에게 던지는 것처럼 구성했지만, 그 내용들이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을 이들은, ‘말벌이의 고단함’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인지 아는 연령대일 것 같습니다.

제목이 ‘살아 봐야 알게 되는 것’인데, 미리 알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직접 겪지 않고서는 깨닫기 힘든 것도 있을 텐데요.

“신앙인들이 ‘살아 봐야 별거 없다’라고 자기 생을 정리해 버린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한 국면마다 의미 없거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다는 고백이 당연해집니다. ‘별거 없다’는 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 그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현실이 있지요. <인투 더 스톰>이라는 영화를 보면, 토네이도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촬영하고 싶어 하는 남성이 나옵니다. 그가 욕심을 부리다 토네이도 속으로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게 되는데, 붕 떠서 올라가 보니 고요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나긴 인생을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면서 통과해 본 사람만이 증언하고 외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다 알아듣지 못해도, 언젠가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아우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놓치고 있다기보다, 너무 경쟁적인 현실 속에 내몰리다 보니 신앙과 삶에 대해 넓은 시각으로 고민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사실 선배들이 그래 봐야 얼마나 더 깊은 세계를 경험했겠습니까(웃음).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통과하고 가야 할 것들’ 때문에, 낭만과 청춘, 사색 같은 여유가 없지 않나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이나 생각으로 나오는 고백들이 피상적인 수밖에 없지요. 사회적 구조나 교회 현실 때문에 강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 마음에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이란,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삶이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닥과, 실패의 자리로 부름받더라도,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끄시는 방법으로 당신을 가장 만족케 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막막할지라도, 이 삶의 내용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을 두뼱두뼱 가면서, 험푼한 자리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이들을 향해 손뼉 쳐 주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기가 막힌 신앙의 깊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보다 훨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이대용 기자



김관성 목사

저자는 책에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듯,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강조한다. 따뜻한 열정으로 목회하고 있는 저자는, 탁월한 예배 인도자이면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 중 한 사람이다.

이번 책은 김병삼 목사가 만나교회 특별새벽기도회 ‘변화산 기도회’에서 ‘사랑’을 주제로 전했던 두 차례의 설교를 엮은 것이다. ‘그 산에서 만남시다’ ‘웰컴 투 광야’ 등, 제목만 들어도 독특한 영성이 묻어난다. 저자는 참 사랑이 없고 심지어 지독하고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일치와 연합과 회복도, 결국 ‘사랑’으로만 이뤄진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했던 권력, 욕망, 명예, 소유, 집착, 통제, 영향력, 인정, 이기심, 주도권 등을 교정(矯正)함으로써 가능하다. 잘못된 사랑을 알아야 올바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요즘처럼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 때가 있었던가? 어떤 노래도, 드라마와 영화도, 설교도 ‘사랑’이라는 말이 빠질 때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사랑을 찾아보기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진단한다.

올해는 유난히 사건과 사고가 많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책임소재를 가려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것. 저자는 “마치 ‘사랑’을 이야기하면 ‘정의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처럼 비치기도 했고, ‘조금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서하자’고 하면 불의에 눈 감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는 그토록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먼저야!’라고 이야기할 때조차, 늘 나보다 상대방이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며 “‘사랑이 이긴다’고 수없이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증명되기보다는 ‘누군가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았나’라고 지적한다. 자신도 그랬음을 아들과의 대화



사랑이 먼저다
김병삼 | 규장 | 224쪽

를 통해 고백한다. “언젠가 제 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가장 실질을 안 하는 사람이 아빠 같아요!’ 교인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것을 실천할 시간이 저에게는 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요즘은 말씀을 전하면서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기보다, 제 반성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랑이라는 ‘허명(虛名)’을 파하고, ‘먼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라고 도전한다. 또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격려한다.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이 이기는 간증과 역사를 목도하게 되리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친절하거나 예의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일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일방적이었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김병삼 목사는 현재 감신대 겸임교수, KOSTA 강사, CTS 기독교 TV 이사, (사)월드휴먼브리지 대표이사, 하늘다리호스피스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 <그래야 행복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등이 있다.

이대용 기자

-첫 책 이후 1년 만에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할 이야기가 많으셨나 봅니다.

“특별한 동기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주일예배가 끝나고 방에 있는데, ‘애들이 이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1년부터 20년까지 써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과 함께 출판사의 제의로 100번까지 채워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대상이 ‘함께 길을 걷는 아우에게’인데, 청년 사역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 청년들 사는 모습이 걱정됐어요. 조금 하다 쉽게 포기하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는데도 철학적·신학적인 깊은 고민없이 상황들을 회피한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단세포적으로 고민도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전 세대가 통과해 왔던 삶과는 환경 자체가 다르지만, 생각의 경향이 나 삶의 스타일들이 너무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잔소리만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싶었지만, 뻔한 이야기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잔소리와 위로, 신경질과 격려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 아프면서 형성되고 깨우쳐준 것들로 위로하고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힘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잔소리를 했는데, 왜 반응이 좋을 까요. 청년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 걸려 죽겠다고 하다가도, ‘나는 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도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결합하지 못한 전신기능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약한 인슐린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의 당뇨병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병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병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계기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 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

월 북어구 통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7.99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통불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통가스 치킨데리야끼 감파+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3.8 ALL IN STOCK @ \$36,120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한교연, 서울 달동네서 '사랑의 연탄' 2만장 나눔

양병희 대표회장 "기쁘게 헌신하고 주변 살피는 성탄 되길"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과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 등이 연탄 전달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성탄을 앞둔 22일 오후,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중계동 104번지)에 사랑의 연탄 2만장을 전달했다.

이날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및 교인들이 직접 연탄을 나르며,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전달식에 앞서 서울연탄은행에서 진행된 예배에서는 신광수 목사(사회문화국장)의 사회로 이영한 장로(평단협 사무총장)가 기도, 김정훈 목사(사회위원장)가 설교, 양병희 목사(대표회장)가 격려사, 허기복 목사(밥상공동체·연탄은행 대표)가 인사말, 원종문 목사(공동회장)가 축도했다. 김춘규 장로(사무총장)는 광고와 소개의

말을 전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맞이하는 성탄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고 오신 날"이라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곳,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에 계신다. 우리 모두 연탄을 나를 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김정훈 목사는 "우리는 이곳에 주민들을 도와주려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과 같이 은혜의 호흡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그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지 않는 복음 전파를 당부했다.

원종문 목사는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했다"며 "이러한 봉사는 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다.

허기복 목사는 '연탄'을 '금탄'이라 부르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전국에 연탄을 때는 곳이 약 16만 8천 가구인데, 그 중 10만 가구는 외부 도움 없이는 난방을 하지 못한다"며 귀한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연탄 나눔에는 양병희 목사, 김정훈 목사, 한영훈 목사, 문원순 목사, 김동근 장로 등이 후원했다.

한교연은 매년 연말연시 기념행사를 자제하는 대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날의 연탄 나눔 외에도 '한국기독교선교130주년 기념대성회' 헌금 500여만원을 전액 노숙자 지원단체인 참좋은친구들에, 사랑의 쌀 1,260kg을 열린복지재단에, '사랑의 쌀나눔' 350kg을 미혼모시설인 꿈나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 탈북자 초청 힐링캠프를 개최하기도 했다.

류재광 기자

한국의 미래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소속없는 신앙인, 신앙없는 소속인

변수	특성	빈도	비율(%)
교회인식 유형	소속없는 신앙인	453	24.5
	신앙없는 소속인	787	42.5
	소속있는 신앙인	328	17.7
	종교적 무신론자	283	15.3

미래세대의 교회인식 유형에 대해 발표된 자료.

제1회 서산현대목회포럼에서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미래세대,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한 교회리서치연구소장 박준호의 설문조사였다. 1987~2001년 사이 출생한 세대를 '미래세대'로 규정하고, 두 달간 심층 면담을 통해 이들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종교성향을 파악했다.

박준호 목사는 "한국사회 미래세대는 '소속 없는 신앙인(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 없는 소속인(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며 "1986-1995년생 집단은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1991-1995년 세대집단(20-24세)보다 1996-2001년(14-19세)과 1986-1990(25-29세)년 집단에서 종교인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①중·고등부와 대학부 졸업 후에는 신앙생활의 장애요인이 많거나 ②대학부가 의외로 신앙생활의 적기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대학부로의 전환 과정과 대학부에서 청년부(또는 초년 직장생활)로의 전환과정에서는 교회교육 측면에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고 했다.

미래세대의 인생관을 보면, 경제생활(직업과 돈)보다는 인간관계(친구와 가정생활)와 웰빙의 삶(건강 및 여가·휴식)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건강이나 인간관계(친구관계·이성문제·부모와의 갈등)보다는 경제생활(진로·학업, 경제적 어려움)을 고민하고, 주말에는 집 안팎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종교관을 보면, 확고한 자신의 신앙이 아닌 모태신앙이거나 집안의 가풍에 의해 교회에 출석했다. 또 성화 관련 영역보다는 십자가와 구속을 복음의 핵심으로 중요시했다. 기독교는 이웃 종교들에 비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지만, 효과는 적었다. 미래세대는 기독교인들의 전도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전도자가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 목사는 '교회인식 검사지(약식)' 샘플 소개를 통해 각 교회 미래세대의 특징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사지 해석을 통해 미래세대를 '소속 있는 신앙인, 소속 없는 신앙인, 신앙 없는 소속인, 종교적 무신론자' 등 네 부류로 나눠, 목회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검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무혐의' 처분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 11건 일체 무혐의



오정현 목사

에 걸쳐 소환·계좌추적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이날 이 같은 처

분을 내렸다.

오 목사 반대측은 지난해 그를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고발 항목은 모두 11건으로, 새 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4건, 교회 공금 관련 부분이 7건이다.

사랑의교회는 이와 관련, "이번 검찰 결정으로 오 목사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새 예배당 건축 및 교회 재정 관련 의혹에서 모두 벗어났다"며 "성도들은 이를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훼손됐던 담임목사와 교회

의 명예가 이를 계기로 온전히 회복되고,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생각을 달리해온 일부 성도들과도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사랑의교회에 맡기신 시대적 소명을 함께 감당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교계와 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대사회적 책임, 복음적 평화통일, 제자훈련 국제화, 다음세대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감리교회, 광화문 희망광장에서 성탄예배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2일 오전 광화문 감리회관 희망광장에서 '새날을 여는 청소년 워터와 함께하는' 성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만리교회 청년찬양팀이 인도한 '희망콘서트'에 이어, '희망을 주는 예배' 및 '희망 나눔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왜 아기 예수님 오심이 기쁜 것인가?'(사 43:1, 마 1:18-21)라는 주제로 설교한 여우훈 감독(서강교회, 교단 선교국위원장)은 "성탄은 전무후무한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너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

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 감독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두 가지다. 우리에게 첫째는 생명의 구주로, 둘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며 "생명의 구주이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간직하여, 큰 기쁨으로 맞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참된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복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희망 나눔 전달식'에서는 '새날을 여는 청소년 워터'의 특송 및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강혜진 기자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c)(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지부장: 김경호 목사

☎ 213.249.1161
shelby.moon65@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일보 LA | **☎ 949.864.9162**
cmm6791027@gmail.com

*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료비 분담 사역)입니다.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Hyundai Holidays

최신형 2015 "DEMO"
EQUUS SIGNATURE

\$485

+TAX
36 MON.



MODEL #E0422R85

MSRP: \$62,450, \$4,990 DUE AT LEASE SIGNING, RESIDUAL VALUE \$32,474, LEASE CASH \$2,000, VALUED OWNER COUPON \$1,000, MILITARY \$500 COLLEGE GRADE \$400.

최신형 2015
GENESIS SEDAN 3.8L

\$355

+TAX
36 MON.



MODEL #B1402R65

MSRP: \$39,135, \$1,990 DUE AT LEASE SIGNING, RESIDUAL VALUE \$21,915,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1500, MILITARY \$500, COLLEGE GRADE \$400.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513.4006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